

# 樹黙 秦弘燮 박사 학문세계와 한국미술사에 남긴 업적

강경숙\*

- I. 서언
- II. 생애
- III. 문화·교육 활동
- IV. 학회 활동
- V. 학문세계와 한국미술사에 남긴 업적
- VI. 명리를 멀리한 군자
- VII. 맺음말

## I. 서언

한국미술사학회에서는 2018년 4월 28일 한국미술사학자 진홍섭과 황수영 두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진홍섭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조교 시절인 1962년 5월 어느 날이었다. 선생님은 남방차림에 나(강경숙)에 대해 대강 알아보고 오셨는지 사무실 한 칸에 놓인 의자에 앉으시면서 대뜸 “대학원에서 무엇을 전공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직원은 조교인 나 혼자뿐이었다. 심형구 관장이 갑자기 타계하고 두 해 선배는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50여 년 전 선생님과 의 첫 만남이었다.

\* 前 충북대학교 교수

여러 가지 장면이 주마등과 같이 스쳐 지나간다. ‘수묵 진홍섭선생님’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기술해야 할까. 그의 생애, 문화·교육 활동, 학회 활동, 학문세계와 한국미술사에 남긴 업적 등을 살펴보는 것이 정석이 아닐까 한다(존칭 이하 생략).

## Ⅱ. 생애

진홍섭秦弘燮은 풍기 남원南原이 본관이고 호는 수묵樹默이다. 1918년 3월 8일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나 2010년 11월 6일 서울에서 타계했다. 개성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41년 일본 메이지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했다. 1947년 국립박물관 개성분관장으로 5년간 재직했으며(도 1), 부산 임시정부 수립시기에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장으로 1952년 부임하여 9년간 재직했다(도 2).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과장을 1년간 지내고, 1963년부터 1983년까지 20년 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박물관장으로 활동하고 정년퇴임했다(도 3). 이화여자대학교에서 1974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도 4).

정년퇴임 이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객원교수(1985~1987), 동아대학교 객원교수(1991~1993), 연세대학교 용재庸齋석좌교수(1998)를 역임했다. 1982년 문화관광부 문화의 날에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도 5), 1996년에는 대한민국 학술원으로부터 제41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받았다. 이 밖에 중앙일보 월간미술에서 1997년 제2회 월간미술대상 학술부문을 수상하였다.



도 1 개성 시절, 가운데 진홍섭, 뒷줄 오른쪽 황수영, 왼쪽 장형식. 1940년 경



도 2 경주박물관 직원들과 함께, 1953년



도 3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석호상 앞, 1968년 경



도 4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수여, 1974년



도 5 문화관광부 문화의 날 은관문화 수상, 1982년

### Ⅲ. 문화·교육 활동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부산에 수립되었던 임시정부는 1953년 휴전 협정 후 서울로 환도했고 한국의 현대사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무참히 망가진 한국을 서방세계에 알려야 하는 정치·문화적인 급선무는 해외에서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를 전시함으로써 문화국가임을 표방하는 일이었다. 지금과 같이 한류스타들이 길러진 것도 아니고 건설 기술자가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한국을 위한 효자는 국보급 문화재 뿐 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계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한국이 문화국가임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첩경은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듯 문화재 해외전시였다.

진홍섭의 해외 문화 활동은 1958년 문화재해외전시관 관리로 미국에 간 것이 시작이었다(도 6). 1976~1980년 《한국 미술5천년전》이 개최되어 일본 교토,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카고 등지에서 학술 강연을 하였다. 특히 독일 쾰른의 동양미술관 개관기념 학술강연을 비롯하여 일본 나고야미술관 개관기념으로 《한일고대문화교류전》이 개최되었을 때 학술강



도 6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전시준비 중, 진홍섭, 김원룡, 1958년

연을 하였고, 1981~1982년 일본 도쿄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교토국제교류미술사연구회 등에서 학술강연을 하였다. 이 밖에 인도 및 유럽 지역 유적과 박물관을 시찰한 바 있다.

진홍섭의 국내 문화 및 교육활동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활동이 중심이고 재단법인 호수돈학원 이사,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회장,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교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그는 1961년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 전신)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시작하여 1963~1995년까지 30여 년간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1993~1995년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검토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중심 역할을 하였다.

한국대학박물관협회는 전국 대학박물관이 모여 매년 대학별로 돌아가면서 특별전을 개최하고 기관지 『고문화古文化』를 발행함으로써 대학박물관의 사회 교육적 의무를 수행했다. 선생은 1970~1973년에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도 7).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는 기독교계 여성교육기관으로서 미국인 갈월 선교사에 의해 성에서 1899년에 개교하였다. 재정난으로 폐교에 이르렀을 때 선생은 상당한 재산을 회사함으로써 1941년 명덕여학교로 개칭하여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후원했다. 이 여학교는 6·25 한국전쟁 이후 대전으로 이전하여 1954년 호수돈여자중학교와 호수돈여자고등학교로 다시 개칭하고 중·고등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선생은 1941~1987년까지 재단법인 호수돈학원이사를 역임하였다.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교육의 장이다. 당시 경주박물관 관장이었던 진홍섭은 1954년 10월 10일 어린이박물관 학교를 열고 초대교장이 되었다



도 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17회 학술강연, 1982년



도 8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에 물려 온 아이들, 1954~1956년



도 8-1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 개교 1주년 기념, 1957년 10월



도 8-2 어린이와 박물관을 사랑한 수목 진홍섭 선생님 사진전, 국립경주박물관, 2018년

(도 8, 8-1). 2004년 50주년 기념도록 『아! 우리 어린이 경주박물관 학교』에 의하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 약 3500명이 배출되었다고 하니 2018년까지 셈하면 얼추 4000명은 될 것이다. 이들은 현재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는 50년 전통을 이어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헌신적으로 봉사한 윤경렬尹京烈, 신라문화동인회 등의 후원이 있었고, 1986년 이난영 관장시절에는 경주박물관장이 교장이 되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2014년 60주년 특별전시회는 초대 교장 진홍섭과 2대 교장 윤경렬의 조망이 돋보였지만 선생은 타계한 후였다. 최근 10년 사이 누적 관람객이 120만명이 넘자 시설을 개보수하여 최신 전시기법과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로 “반짝반짝 신라, 두근두근 경주”라는 이름으로 2018년 1월 상설전을 마련함으로써 경주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 교육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도 8-2)(『경주박물관학교 50주년 아! 우리 어린이 경주박물관 학교』, 2004 참조).

경주박물관에 남아 있는 선생의 발자취는 수묵당이다(도 9). 수묵당은 이영훈 관장 시절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세우고 이끌면서 애쓰셨던 수목 진홍섭과 고청 윤경렬 두 선생을 기리기 위해 한옥건물은 수묵당樹默堂으로, 그 옆 연못은 고청지古靑池로 명명하고 재정비했다. 수묵당의 현판은 이영훈 관장의 글씨이다. 수묵당 한옥건물은 사회교육의 장이었고



도 9 수묵당, 아들 전 진주박물관장 진화수, 2007년 6월 21일



도 10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답사 삼존불상 설명, 1960년대 후반



도 11 수목 선생님 팔손 축하모임, 여여회 제자들, 하얏트 호텔, 1998년(출처: 삼성미술관 리움)



도 12 경주 어린이박물관 수목문고, 2018년

도 12-1 경주 어린이박물관 수목문고가 있는 도서실, 2018



지금도 사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선생은 미술사 전공 제자를 많이 길러냈다(도 10). 제자들 가운데는 대학교수가 되기도 하고 전문기관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제자들이 여럿 있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 미술사를 공부하는 남편과 더불어 폭 넓은 선생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다. 이들 제자는 선생이 지어준 여여회(如舍)라는 이름으로 고적답사와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어 왔다(도 11). 여여회에서는 각별히 어린이를 사랑했던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11년부터 “수목문고”라는 이름으로 11월 6일 기일을 전후하여 경주 어린이박물관에 어린이 도서를 매년 기증하여 텅비어 있었던 서가를 가득 채워 오고 있다(도 12, 12-1).

경주를 사랑했던 선생의 또 다른 면모는 서울 부산간 경부선 고속철도 KTX의 노선 변경을 주장했던 일이다. 이 노선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고 경주 선도산 자락에 있는 김유신묘 옆으로 지나가게 설계가 이미 완성된 시점이었다. 필자는 1995년 당시 한국미술사학회 회장으로 5월달에 개최하는 전국 역사학회를 주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학회 회장일과 전국 역사학회 개최 준비만으로도 벅찼지만 경주 통과 고속철도의 노선을 막아야하는 일은 시간을 다투는 더욱 시급한 사안이었다. 10개 역사학회뿐만 아니라 고고·미술관계 학회까지 힘을 합쳐 모두 16개 학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 시민회관에서 고속철도 경주 통과 노선을 반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일을 주도했던 필자는 처음부터 진홍섭선생과 의논하면서 진행했다. 선생은 「경주는 중환자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고 현장에서 달걀세례를 받았다. 결국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12km 떨어진 지금의 건천으로 노선이 조정되고 역사 건물이 지어졌다. 선생은 문화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였고 필자는 선생이 계셨기에 용기를 잃지 않았다. 이 일은 한국미술사학회가 해낸 업적이다.

#### IV. 학회 활동

진홍섭의 한국미술사학회 활동은 묵묵히 뒤에서 밀어주고 앞장서야 할 때는 대표위원으로 앞에서 끌었다. 『고고미술考古美術』 창간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6·25 한국전쟁 이후 새로 발견되는 문화재와 때로는 이들이 외부로 반출되는 현상,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 관심의 고조 등을 직시하면서 기록으로라도 남겨 유물의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1960년 초 김원용, 전형필, 진홍섭, 최순우, 황수영(가나다순) 다섯 분의 뜻이 모아졌다.

1960년 8월 15일을 기해 『고고미술』 창간호가 등사기 인쇄인 유인물로 나오면서 고고미술동인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고고미술』은 현지 조사 자료가 중심으로 매달 한 권씩 월간으로 나왔는데 신자료의 소개뿐만 아니라 문화계 소식지의 역할도 했다. 고고미술동인 외에 박물관이나 이에 동조하는 학자들의 글도 실렸다. 고고미술동인들은 신자료의 소개가 쌓여감에 따라 학술적인 논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학문적인 욕구가 절실했다.

고고미술동인회는 드디어 1968년 2월 정식으로 한국미술사학회로 발전했고 진홍섭은 1968~1969년까지 제1대 대표위원으로써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이에 『고고미술』은 1968년 11월 15일 100호를 끝으로 유인물 인쇄의 막을 내리면서 100호 기념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를 기점으로 매달 월례 학술발표가 정례화 되었다. 『고고미술』은 1969년 3월 101호부터 500부 한



도 13 우현 고유섭의 달 기념 특별강연, 1992년

정의 활자판 학술지(비매품)가 되었고 일 년에 4회 나오는 계간지로 발간되었다. 그러나 『考古美術』이라는 제호는 미술사 논문이 중심을 이루는 학회지로서는 성격이 불분명하여 30주년을 맞던 1990년 “고고” 2자를 빼고 『미술사학연구美術史學研究』로 제호를 바꾸었다. 『美術史學研究』는 1990년 12월 제188호부터 2018년 6월 298호까지 계속 발간됨으로써 학회 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국미술사학회는 1968년 2월 학회로 성장하고, 진흥섭은 제1대 대표위원으로 추대되었다. 본 학회는 바로 역사학회의 일원이 되었고 이 해 6월 전국역사학대회 개최의 주관학회로 그 임무를 다함으로써 한국미술사학회의 잠재능력은 자타가 인정하였다. 이처럼 진흥섭은 제1대 대표위원으로 2년간 한국미술사학회의 기초를 닦고 또한 대외에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한 월례발표회는 1970~1971년까지 2년 간 지속되었지만 그 후 8년간은 열리지 못했다. 1980년 창립 2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는 학회 활동의 회고와 전망을 조망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회원 확대, 기금 조성, 사무국 정착, 게재 논문의 질적 향상 등 임을 재인식하고 이들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다시 학회는 재도약을 시도했으며 진흥섭은 그 선봉에 서서 1980~1981년 제7대로 대표위원직을 다시 맡았다.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1980년대 재도약의 기간 10년 간은 월례발표회가 자리잡게 되었고(도 13), 무엇보다도 한국미술사학회의 사단법인화가 추진되었다. 1989년 10월 26일 문화공보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학회는 재도약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학회의 사단법인화 작업은 11대

대표위원인 정양모(1988~1989)의 수고가 컸다.

1990년대는 한국미술사학회가 펴낸 『50년사』에서 언급했듯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2000년대 이후는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국미술사학회가 50년을 훌쩍 넘게 성장하기까지 선생은 항상 뒤에서 말없는 응원과 과감한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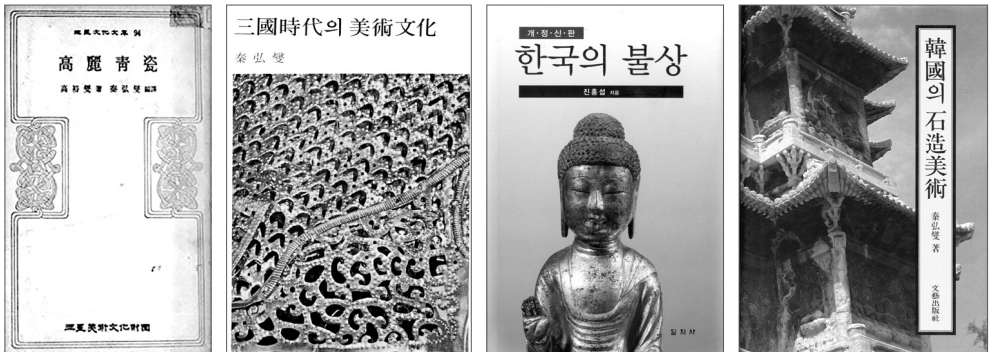
## V. 학문세계와 한국미술사에 남긴 업적

진홍섭의 학문세계는 <저서>, <논문>, <보고서>, <전집·도록> 등을 통해 얼마나 방대한가를 알 수 있다. 이들의 성과는 종류별 편년체제로 정리하여 학문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조)

### <저서>

총론적인 저서로는 『경주의 고적』(통문관, 1957); 『청자와 백자』(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등이 있다. 고유섭 저 『고려청자』는 오래된 문체여서 진홍섭이 보다 알기쉽게 다시 편역 정리한 것으로 1977년 삼성문화문고 94로 출판되었다. 『삼국시대의 미술문화』(동화출판공사, 1976)는 1966~1974년까지 발표한 8편의 논문을 모았고 특히 『삼국시대 고구려 미술이 백제·신라에 끼친 영향』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분야별 저서로 『한국의 불상』(일지사, 1976/2009)은 12쇄까지 출판되어 왔고 타계 1년 전인 2009년 개정신판을 낼 때 선생은 머리말을 씀으로써 생의 마지막까지 후학에게 귀감이 되었



도 14 『고려청자』 1977년; 『삼국시대의 미술문화』 1976년; 『한국의 불상』 1976년; 『한국의 석조미술』 1995년

다. 『한국금속공예』(일지사, 1980)는 장신구, 불구, 사리구, 일상용품을 개관한 책이다. 『한국의 석조미술』(문예출판사, 1995)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순백의 맑은 돌 화강석이 불교미술품 재료의 근간을 이룬다는 데 착안하여 아름답게 다듬어진 탑, 불상, 부도, 석비, 석등, 당간지주 등을 종합하여 엮은 책이다(도 14). 『한국불교미술』(문예출판사, 1995)은 일반적인 불교미술의 정의, 기원, 전파를 총론한 후, 한국 불교미술의 건축·조각·공예·회화·서가書家·화가장인 등을 총체적으로 기술한 책이다.

『신라·고려시대 미술문화』(일지사, 1997)는 그 동안 발표한 글을 한 권으로 엮어 제자들이 선생의 산수傘壽를 맞아 증정한 책이다. 책의 구성은 총론(7편), 신라시대의 미술문화(11편), 고려시대의 미술문화(10편)의 3부로 나누고 각각의 논문 말미에 게재지와 발표일을 밝혔다. 이 밖에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 시리즈로는 『불상』(1989); 『석불』(1989); 『금동불』(1992) 등이 있다.

일본에서 출판된 저서로는 『慶州文化財散步』(學生社, 1973); 『韓國の石佛』(近藤出版社, 1979) 등이 있다. 田村圓澄과 진홍섭 공편으로는 『新羅と日本文化』(吉川弘文館, 1981)가 있다. 번역서는 久野健·辻惟雄·永井信 공저, 진홍섭 역 『일본미술사』가 있는데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번역했고 열화당 미술선서 11권으로 1978년에 출판되었다. 이외에 진홍섭 편저에는 『韓國美術』2, 신라·고려미술(일본 講談社, 1987)이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불교미술을 조망했다.

『한국미술사 자료집성』9권은 대표적인 저서이다(도 15). 1987년 일지사에서 첫 권이 나온 이래 2002년 부록편까지 15년간 총 9권에 걸쳐 자료가 집성되었다. 미술사 연구에서 문헌기록과 유물은 두 축을 이룬다. 그 한 축을 세우기 위해 선생은 평생 고심하면서 스스로의 임무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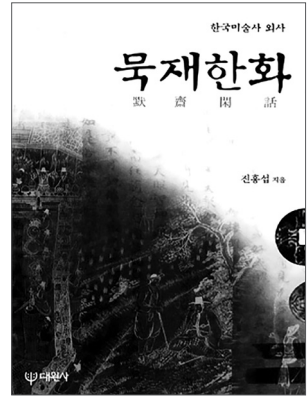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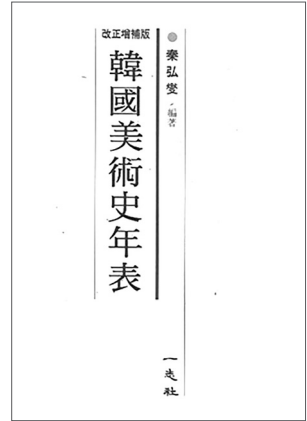
도 15 『한국미술사자료집성』 9권, 1996~2003년

행했다. 『한국미술사 자료집성』은 한 권의 책을 쓰는 것과 달리 지방대학교 도서관과 전국의 고문서 소장자를 일일이 방문하여 한 줄의 기록이라도 찾아내고자 한 집념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일을 함께 수행한 일지사의 고 김성재 사장과 편집 교정에 탁월했던 김유진이 보조를 맞추어 주었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9권의 내용은 1권 삼국시대~고려시대(1987); 2권 조선전기 회화(1991); 3권 조선전기 건축·조각·서사·공예(1991); 4권 조선중기 회화(1996); 5권 조선중기 건축·조각·서사·공예(1996); 6권 조선후기 회화(1998); 7권 조선후기 건축·조각·서사·공예(1998); 8권 보유편(2002); 9권 부록(2002)으로 편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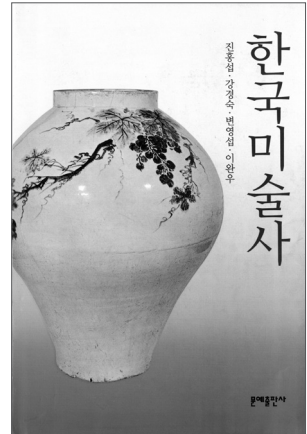
『한국미술사 연표』(일지사, 1981/1992/2006)는 한 눈에 한국 미술의 흐름을 간략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 남긴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처음 시작은 최순우와 함께했지만, 그 다음에 출판된 것은 진홍섭이 단독으로 수정 증보하였다. 『목재한화 默齋閑話-한국미술사 외사』(대원사, 1999)는 연세대학교 용재석좌교수 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옛 기록 중에 미술과 관계되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어 미술사 전공자나 일반인들도 한 번 읽어 볼만한 책이다(도 16).

『한국미술사』는 진홍섭·강경숙·변영섭·이완우의 공저(문예출판사, 2006)로 제자들과 함께 쓴 개설서이다. 진홍섭은 서장, 각 시대 개관, 조각, 건축, 맺음말 등을 담당했고 생전에 마지막으로 꼭 해야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된 개설서이다. 특히 5장으로 구성된 서장은 평생 미술사를 연구해 온 집약된 선생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한국 미술의 형성, 한국 미술의 성격, 외래 미술의 수용, 미술사학의 연구, 한국 미술사의 시대 구분 등에 대한 기술이다(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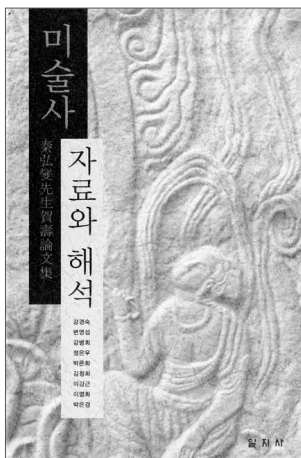
『미술사, 자료와 해석』(일지사, 2008)은 “진홍섭선생 하수 9인 논문집”이다. 이 책은, 형식적이고 무거운 축하 논문집을 선생은 평소에 원치 않았기때문에 그 소신에 따라 아홉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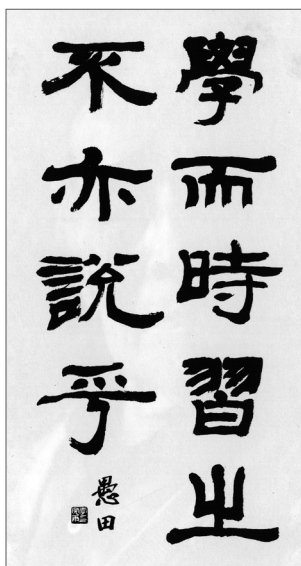
도 16 『한국미술사연표』 2006년; 『목재한화』 1999년



도 17 『한국미술사』 2006년



도 18 『미술사, 자료와 해석』진홍섭 선생하수논문집, 2008년(구순 기념)



도 18-1 『미술사, 자료와 해석』에 있는 이원우 교수의 축하 글씨

자가 구순을 축하하기 위해 소박하게 꾸며 증정한 책이다. 여기에는 선생의 근영과 자작시 ‘어찌 하오리까’ 그리고 우전愚田 이완우의 서체가 실려있어 선생과 제자간 애정의 향기가 스며 있다(도 18, 18-1).

### 〈논문〉

1960년대의 글은 20세기에 들어 폐허가 된 유적지 혹은 그 당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유적과 유물, 그리고 6·25 한국전쟁 시 파괴되어 흩어져 있는 석조물, 불상, 탑, 와당 등의 현지 조사 자료의 소개가 중심이다. 1970~1990년 대의 글은 새로 알려진 자료가 학술적으로 해석되면서 본격적으로 미술사학이 자리매김 되었다. 따라서 진홍섭의 논문은 입문적인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총론에 속하는 논문에는 「문화유산과 문화창조」, 『한국사의 반성』(1969); 「한국예술의 전통과 전승」, 『공간』(1966); 「백제 미술문화와 신라·고구려 미술문화와의 비교」, 『백제문화』 8(1975); 「삼국시대 미술의 정신세계」, 『전통과 사상』 I(1986); 「고려시대의 미술문화와 사상」, 『전통과 사상』 III(1988); 「한국미술의 대외교섭-백제」, 『백제미술의 대외교섭』(1998) 등이 있다. 총론적인 6편의 논문을 통해 볼 때 문화유산과 창조, 전통과 전승, 삼국시대 미술의 비교와 미술문화, 대외교섭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분야별 논문은 「계유명삼존천불비상에 대하여」, 『역사학보』 17·18(1962); 「경주 석빙고의 축조연대」, 『이대사원』 5(1964); 「남산 신성비의 종합적 고찰」, 『역사학보』 26(1965); 「한국 모전석탑의 유형」, 『문화재』 3(1967); 「석조건축물의 사자의 용례」, 『학술원 논문집』 7(1968); 「한국의 眼象 문양」, 『동양학』 4(1974); 「고대 한국 불상양식이 일본 불상양식에 끼친 영향」, 『이화사학연구』 13·14(1983) 등이 있다. 7편의 각 분야별 논문을 통해 볼 때 남산 신성비의 편년, 불상의 연대 파악, 일본에 끼친 영향, 석조물과 더불어 사자 용례 및 안상 문양 등에 주목했고, 석탑·전탑·모전석탑의 관계 등 모

든 분야의 미술품을 섭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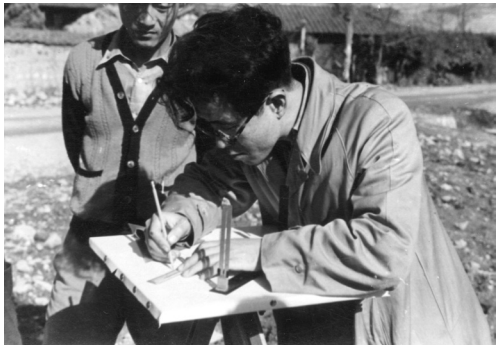
『고고미술』에 실린 글의 성격은 1960년 8월 고고미술동인회가 발족되면서 통권 100호까지 약 8년간은 새로 발견한 자료의 소개가 중심을 이룬다면, 한국미술사학회로 발전한 후 통권 101호부터는(1969~1980년대) 자료를 중심으로 입론적인 글이 많아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1970~1980년대 『고고미술』에 발표한 선생의 글은 몇 편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별첨자료로 정리하였다.(\* 참고문헌 참조)

「삼국시대 일 연화문 형식에 관한 비교시론」, 『고고미술』 113·114 (1972. 6); 「고신라시대 칠기 彩畵에 나타난 고구려의 영향」, 『고고미술』 123·124 (1974. 12); 「이형석탑의 일기단 형식의 고찰」, 『고고미술』 138·139 (1978. 9); 「고신라시대의 조각」, 『고고미술』 150 (1981. 6); 「안압지출토 금동관불」, 『고고미술』 154·155 (1982. 6); 「통일신라시대 특수양식의 석탑」, 『고고미술』 158·159 (1983. 1); 「중원지방의 불교미술」, 『고고미술』 160 (1983. 12); 「금동불상 <고려후기 금동불상에 나타나는 라마불상 양식>」, 『고고미술』 166·167 (1985. 9) 등 이상의 8편은 주로 불상과 석탑에 관한 것이며 모두 한국미술사학회가 주관할 때 발표한 논문이다. 이 밖에 국립박물관 학술지인 『미술자료』에는 6편의 글이 있다.

#### 〈보고서〉

안동지역에는 왜 신라시대 8세기 전탑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선생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장 재직 시 안동 조탑동 및 중가구동의 고분과 개목사전탑지 및 전 옥산사탑지를 발굴했다. 이외에 영주 순흥리 벽화고분을 발굴함으로써 선생은 고고학 영역에서도 크게 활동했다.

『조탑동造塔洞고분 발굴조사보고』(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75)는 서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만이 고고학 발굴을 하였지만 1950년대 후반에는 국립박물관을 위시해 고려대, 경북대, 서울대 등의 대학박물관이 고분 발굴을 시작했다. 선생은 경주박물관장 시절 고분 발굴의 경험이 있다(도 19). 1964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안동 조탑동의 고분 발굴로 세간의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고 안동지역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도 19 고분 발굴 시 실측 모습, 1950년 대 후반

(도 20). 선택한 고분은 조탑동 5층전탑 근처에 있는 규모가 가장 큰 '봉토석실분'이었다. 전탑과 고분과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상정했으나 발굴 결과 고분의 상한연대는 5세기 중엽으로 확인되었다.

『중가구동中佳邱洞고분 발굴조사보고』(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77)의 서언에 의하면, 두 번째 발굴은 첫 번째 발굴했던 조탑동과는 반대 지역인 와룡면 중가구동 구릉에 분포한 고분군을 택했다. 발굴 결과 '횡혈식 석실분'이고 출토 토기 등의 성격으로 보아 상한을 5세기 중엽으로 편년하였다.

『개목사전탑지 발굴조사보고·전 옥산사탑지 발굴조사보고』(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5)는 조탑동과 중가구동의 고분 발굴과는 달리 전탑지에 관한 발굴 조사이다. 문헌기록에는 없지만 개목사 경내에 흩어져 있는 전塼을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여 발굴했고 전탑지를 확인한 결과를 얻었다. 전 옥산사탑지 조사에서는 한 면을 세 구역으로 하여 안상眼象이 장식된 화강석의 기단석을 발견했다. 안동 조탑동 5층 전탑이 초층까지 화강석으로 축조된 점을 감안하면 화강석제의 사용은 안동지역 전탑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확인한 성과를 거두었다. 개목사전탑지와 전 옥산사탑지의 연대는 신라하대로 추정되었다.

『영주순흥 벽화고분 발굴조사보고』(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4)는 1971년에 발굴한 6세기 신라 석실묘의 벽화고분이다. 고구려계통 벽화와 '어숙지술간於宿知述干'명 묘지가 처음으로 알려졌고 "순흥어숙묘順興於宿墓"라는 명칭으로 국가사적 238호로 지정되었다.

『한국문화연구원 논총』은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이다. 한국일보사가 1964년부터 '신라오악종합학술조사를 실시했을 때 진흥섭은 북악인 태백산 조사를 주관했으며 본 논총에 「신라 북악태백산 유적조사보고」를 7회에 걸쳐(1979~1982) 게재했다. 조사 보고의 내용은 경북 봉화·영주·문경·안동·예천·울진, 강원도 영월·삼척·정선, 충북 단양 등에 분포하고 있는 불교관계 유적과 유물이 중심이다.

선생은 안동지역에서 두 곳의 고분과 두 곳의 전탑지를 발굴·조사했으나, 종합적인 안동의 문화 양상을 규명하기에는 그 당시 제반 여건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영



도 20 안동조탑동 고분발굴 현장. 발굴대원, 기자들, 1964년

주순흥 벽화고분 발굴은 신라시대의 벽화가 있었다는 것을 학계에 알린 첫 계기였다는 점에서 학계에 공헌한 바 크다.

〈전집·도록〉

문화재 관계 전집은 1962년 전후하여 도판해설이 있는 흑백의 『국보도록』 6권을 문교부에서 출판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동화출판공사에서 출판한 『한국미술전집』 15권 (1973~1975)은 미술문화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교양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예경산업사 출판의 『국보』 12권 (1983~1985)은 도록으로서의 완성을 이루었다.



도 21 수목 진홍섭선생 서가, 서울 삼성미술관 리움 도서관 (출처: 삼성미술관 리움)

진홍섭은 『한국미술전집』 15권 중에 3권 토기·토우·와전(1974), 그리고 8권 금속공예(1974)의 편저자이다. 예경산업사는 창업 10주년을 맞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와 앞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망라해서 『국보』 12권을 출판했다. 각 권은 대부분 선명한 칼라판에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인쇄술이 동원되었다. 각 도판마다 간단한 설명이 있고 후미에는 전체 개관이 실려 있다. 『국보』는 손색이 없는 도록으로 그 당시 여러 분야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미술사 연구자는 오래도록 유용하게 인용하였다. 선생은 『국보』 12권 중에 5권 공예(1985) 및 6권 탐파(1983)를 담당한 편저자이다. 그 외 『한국불상 삼백선』(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석불』(호영출판사, 1982) 등의 공저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온 선생의 학문사랑과 한국미술사에 남긴 방대한 저서와 논문의 흔적은 평생 소장했던 책들이 말해 준다. 이들 책은 선생의 뜻에 따라 서울 삼성미술관리움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이곳에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선생의 서가는 원할 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도 21).

## Ⅵ. 명리를 멀리한 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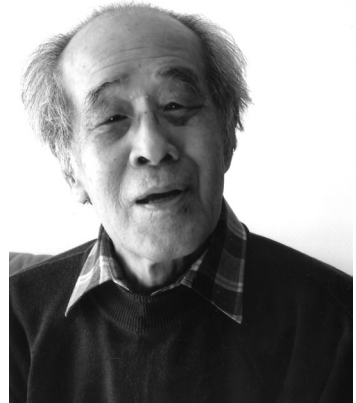
선생은 온생을 받쳐 힘쓴 학문 사랑의 진지함과 한국미술사학계 및 문화·교육분야에 남긴 업적은 진실로 막중하다고 하겠다. 천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도 병상에서 교정을 보았고 타계

직전까지 출판된 책의 오타를 찾아낸 일은 선생의 학문 사랑의 단적인 일면이다. 학문 사랑의 결실은 『한국의 불상』, 『삼국시대의 미술문화』, 『한국의 석조미술』, 『한국 금속공예』, 『한국 불교미술』, 『신라·고려시대 미술문화』 등 10여권의 저서와 15년 간 편찬된 아홉 권의 『한국미술사 자료집성』으로 남았다.

8세기의 전탑이 밀집해 있는 안동지역의 문화적인 특수성을 밝히기 위해 고분과 전탑지를 발굴 조사했으며 이는 불교문화에 대한 그의 학구적인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영주순흥 벽화고분’의 발굴은 신라시대 벽화고분의 존재를 처음으로 학계에 알린 업적으로 평가된다. 평생 꼭 집필하고 싶었던 『한국미술사』는 제자와 공저로 펴낸 것으로 80세가 넘은 시점이었다. 이처럼 선생의 학문 사랑은 곧 학문 업적으로 남아 한국미술사학계에 크게 기여했다.

미술작품은 인간의 손을 거친것이므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술사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일찍이 폐교에 당면한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를 살려낸 일이라든지,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경주 어린이박물관학교를 세운 것은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평소에 말씀이 적고 제자를 크게 칭찬하지 않았지만 여여회에 모인 미술사 전공 대학제자들은 선생을 따르고 존경했다. 과장됨이 없고 따뜻한 진정성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기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면모가 수묵 진홍섭선생이시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제의가 있었을 때, 이 자리를 마다하고 최순우 선생을 관장으로 적극 추천한 일은 평소 명리名利를 쫓지 않은 인품의 일면이다. 서지학자 임창순 선생은 “진홍섭 선생은 군자君子라 할만 하다”라고 종종 말했다. 공자의 논어 첫머리에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는 바로 진홍섭 선생을 가리키는 듯하다(도 22).



도 22 자택에서 수묵 선생님 모습, 2006년

## VII. 맺음말

지금까지 수묵 진홍섭의 생애, 문화·교육 활동, 학회 활동을 통해서 선생의 학문세계와 한국미술사에 남긴 업적을 살펴보았다. 1945년 개성박물관을 시작으로 경주박물관, 이화여자대

학교박물관에서 평생 우리 문화재를 연구하고 학생을 지도했다. 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써 각종 문화재 보호와 지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불교문화에 깊이 심취하여 한국의 불상, 공예, 건축 등에 관한 많은 논문을 남겼고, 특히 고구려 문화가 백제와 신라에 끼친 영향에 대한 고증적인 연구는 삼국의 관계를 폭 넓게 조망했던 선생의 학문세계를 보여준다. 전탑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안동지역의 문화를 규명코자 고분, 사지 등의 학술발굴은 미술사를 넘어 고고학 영역에서도 활발한 의욕을 보여주었다. 신라 오악 조사의 일환으로 발굴한 영주 순흥의 벽화고분은 고구려 고분문화의 남진을 확인함과 동시에 신라 벽화고분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업적으로 높이 평가된다.

경주박물관장 시절 6·25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은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 설립으로 보여 주었고, 재정난으로 폐교를 눈앞에 둔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를 재정적 후원으로 살려낸 일은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주시내를 관통하게 될 고속철도의 노선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주는 중환자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선생은 달걀 세례를 받았지만 문화재의 사랑 나아가서는 조국을 사랑하는 정의감이었다. 대학제자들에게는 무언의 이와 같은 사랑이 베풀어졌기에 존경받고 있지 않는가.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평생 명리名利를 멀리한 선생의 인격은 군자君子임에 틀림없다. 우리 후학들은 학문 사랑, 문화재 사랑, 열정적인 학회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수목 진홍섭을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미술사학회가 출발로부터 한 단계씩 도약할 때마다 선생은 대표이사로 선봉에서 학회를 이끌었다. 또 선생은 초창기에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했던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수목선생님을 비롯해 다섯 분이 내린 뿌리는 오늘날 학회가 단단하게 우뚝 선 나무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고고미술동인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한국미술사학회는 2년 후에 환갑의 나이를 맞는다. 나무가 시들지 않고 뿌리가 썩지않아 우람한 고목이 되어 600년 후에도 화려한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_수목 진홍섭(樹默 秦弘燮, Soomuk Chin, Hong-sup), 생애(生涯, Career),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호수돈여자高等普通學校, Hosudon Girls' High School),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慶州어린이博物館學校, Gyeongju Children's Museum School), 고속철도KTX(高速鐵道KTX, high-speed railroad KTX), 여여회(如如會, Yeoyeohoe), 수목당(樹默堂, Hall of Soomuk), 고고미술동인(考古美術同人, Coterie of Antiquarians), 학문업적(學問業績, Academic Achievements), 군자(君子, A Man of Noble Character)

## 참고문헌

### 1. 단행본

- 秦弘燮, 『慶州의 古蹟』, 通文館, 1957.
- \_\_\_\_\_, 『慶州의 古蹟』, 悅話堂, 1975.
- \_\_\_\_\_, 『慶州 文化財 散策』, (日)學生社, 1973·1977.
- \_\_\_\_\_, 『청자와 백자』교양국사 총서 0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제1판)·1999(제2판).
- \_\_\_\_\_, 『三國時代의 美術文化』, 同和出版社, 1976.
- \_\_\_\_\_, 『한국의 불상』, 일지사, 1976(1쇄)·2009(개정신판1쇄).
- 高裕燮, 秦弘燮 편역, 『高麗靑瓷』삼성문화문고 94, 삼성미술문화재단, 1977.
- 久野健·辻惟雄·永井信一 共著, 秦弘燮 譯, 『日本美術史』悅話堂美術選書 11, 悅話堂, 1978.
- 秦弘燮, 『韓國の石佛』, (日)近藤出版社, 1979(韓國美術 시리즈 2).
- \_\_\_\_\_, 『韓國金屬工藝』韓國文化藝術大系 12, 一支社, 1980.
- 秦弘燮·崔淳雨, 『韓國美術史年表』, 一支社, 1981·1992·2006.
- 田村圓澄·秦弘燮, 『新羅と日本古代文化』, (日)吉川弘文館, 1981.
- 임동권·진홍섭·임재식·이부영, 『한국의 도깨비』國立民俗博物館叢書1, 열화당, 1981.
- 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 資料集成』1-9, 一支社, 1987~2002.
- \_\_\_\_\_, 『新羅·高麗美術』, (日)講談社, 1987(韓國美術 2).
- 진홍섭, 사진 안장현·손재식, 『불상』 빛깔있는 책들 103-1, 대원사, 1989.
- 진홍섭, 사진 안장현, 『석불』 빛깔있는 책들 103-4, 대원사, 1989.
- 진홍섭, 사진 진홍섭·안장현, 『금동불』 빛깔있는 책들 132, 대원사, 1992.
- 秦弘燮, 『韓國의 石造美術』, 문예출판사, 1995.
- \_\_\_\_\_, 『新羅·高麗時代 美術文化』, 일지사, 1997.
- 정영호·진홍섭·황수영,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秦弘燮, 『韓國佛教美術』, 문예출판사, 1998.
- \_\_\_\_\_, 『목재한화』, 대원사, 1999.
- 진홍섭·강경숙·변영섭·이완우, 『한국미술사』, 문예출판사, 2006.
- Chin, Hongsup. Secretary Chung, Youngho. 『A SHORT HISTORY OF KOREAN ART』, Art History Association of Korea, 1970.

## 2. 논문 1

- 秦弘燮, 「新發見 南山新城碑小考」, 『歷史學報』13, 1960.
- \_\_\_\_\_, 「癸酉銘 三尊千佛碑像에 對하여」, 『歷史學報』17-18, 1962.
- \_\_\_\_\_, 「연기계유명삼존천불비상(燕岐癸酉銘三尊千佛碑像)」, 『西洋史論』Vol. 3, 1호, 1962.
- \_\_\_\_\_, 「慶州 石氷庫의 築造年代」, 『梨大史苑』5, 1964.
- \_\_\_\_\_, 「南山新城碑의 綜合의 考察」, 『歷史學報』26, 1965.
- \_\_\_\_\_, 「韓國 藝術의 傳統과 傳承」, 『空間』11월호 1966. 11.
- \_\_\_\_\_, 「우리 傳統의 反芻-韓國의 塼塔」, 『空間』3월호, 1967. 3.
- \_\_\_\_\_, 「韓國石塔의 造形美」, 『文化財』1, 1965.
- \_\_\_\_\_, 「韓國의 石燈」, 『文化財』2, 1966.
- \_\_\_\_\_, 「韓國 模塼石塔의 類型」, 『文化財』3, 1967.
- \_\_\_\_\_, 「興寧寺 澄曉大師遺蹟」, 『梨花史學研究』2, 1967.
- \_\_\_\_\_, 「石造 建築物의 獅子의 用例」, 『學術院論文集』7, 1968.
- \_\_\_\_\_, 「昭陵石虎」, 『藝林』1 창간호, 1968.
- \_\_\_\_\_, 「文化遺産과 文化創造」, 『韓國史의 反省, 역사학회편저, 신구문화사, 1969.3.
- \_\_\_\_\_, 「文化遺産과 文化創造」, 『現代人 講座』별권, 박우사, 1969.
- \_\_\_\_\_, 「美術史·考古學」, 『歷史學報』44, 1969.
- \_\_\_\_\_, 「皇龍寺 木塔址 발견 花樹對禽紋 鈎具」, 『李弘植博士回甲記念論叢』, 1969.
- \_\_\_\_\_, 「南原 萬福寺址 石塔의 調査」, 『白山學報』8, 1970.6.
- \_\_\_\_\_, 「서평: 鄭永鎬저, 尙州지구고적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박물관 고적조사보고서 제3책, 단국대학교출판부간」, 『歷史學報』45, 1970.
- \_\_\_\_\_, 「신라 북경지역 불상의 고찰」, 『대구사학』7-8, 1973.
- \_\_\_\_\_, 「백제 신라의 冠帽冠飾에 관한 이삼의 문제」, 『史學志』Vol. 7, 1호, 1973. 11.
- \_\_\_\_\_, 「星州 倭鎮山 胎封」, 『韓國史論叢霞城李瑄根博士古稀記念論文集』, 1974.
- \_\_\_\_\_, 「韓國의 眼象문양」, 『東洋學』4, 1974.
- \_\_\_\_\_, 「百濟 美術文化와 新羅·高句麗의 美術文化와의 比較」, 『百濟文化』7-8, 1975.
- \_\_\_\_\_, 「三國時代 冠帽樣式의 二·三問題」, 『梨花史學研究』8, 1975.
- \_\_\_\_\_, 「무녕왕릉발견 頭枕과 足座」, 『百濟研究』6, 1975.
- \_\_\_\_\_, 「특수형식의 석비 일 예」, 『東洋學』5, 1975.
- \_\_\_\_\_, 「高麗時代 工藝美術의 特色」, 『東洋學』6, 1976.
- \_\_\_\_\_, 「高句麗가 百濟·新羅에 끼친 繪畫上的 影響」, 『采研』3, 1978.
- \_\_\_\_\_, 「북한지역의 조형미술」, 『북한』8, 통권92, 북한연구소, 1979.
- \_\_\_\_\_, 「韓國美術史研究의 現況과 展望」, 『韓國文化研究院 論叢』33, 1979.

- 秦弘燮, 『北韓의 石造美術』, 『文化財』13, 1980.
- \_\_\_\_\_, 『서평 : 한국 고미술의 이해/김원용 저, 서울대학교출판부, 대학교양도서7, 1980』, 『梨花史學研究』11-12, 1981.
- \_\_\_\_\_, 『신라시대의 석굴사원』, 『服飾』5, 1981.
- \_\_\_\_\_, 『조선전기의 공예』, 『東洋學』12, 1982.
- \_\_\_\_\_, 『韓國大學博物館의 回顧와 展望』, 『古文化』21, 1982.
- \_\_\_\_\_, 『古代 韓國 佛像樣式이 日本 佛像樣式에 끼친 影響』, 『梨花史學研究』13-14, 1983.
- \_\_\_\_\_, 『百濟佛像의 새로운 注目』, 『馬韓, 百濟文化』7, 1984.
- \_\_\_\_\_, 『백제미술의 회고와 전망 : 백제미술의 연구』, 『百濟研究』15, 1984.
- \_\_\_\_\_, 『東北亞細亞에 있어서의 百濟文化』, 『馬韓, 百濟文化』8, 1985.
- \_\_\_\_\_, 『韓國美術史研究 五十年』, 『梨花史學研究』16, 1985.
- \_\_\_\_\_, 『獅子石塔과 獅子石燈』, 『古文化』27, 1985.
- \_\_\_\_\_,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 임무와 문제점』, 『文化財』18, 1985.
- \_\_\_\_\_, 『서평: 대한민국예술원편, 韓國美術事典(第二卷), 藝術院, 1985』, 『정신 문화연구』Vol. 9, 4호, 1986.
- \_\_\_\_\_, 『三國時代 美術의 精神世界』, 『傳統과 思想』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10.
- \_\_\_\_\_, 『高麗時代의 美術文化와 思想』, 『傳統과 思想』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3.
- \_\_\_\_\_, 『美術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中世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2.
- \_\_\_\_\_, 『韓國美術의 對外交涉-百濟』, 『百濟美術의 對外交涉』, 예경, 1998.
- \_\_\_\_\_, 『開城 高麗美術의 意義 : 잊혀진 왕조의 미술』, 『講座美術史』17, 2001.
- \_\_\_\_\_, 『나의 미술사 연구』, 『韓國史學史學報』6, 2002. 9.
- \_\_\_\_\_, 『개성의 유적』,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8, 2006.

### 3. 논문 2

『考古美術』·『美術史學研究』·『美術資料』

『考古美術』

- 秦弘燮, 『榮州 石浦里 四面佛石』, 『考古美術』1-1(1), 1960. 8.
- \_\_\_\_\_, 『聞慶 觀音里의 石佛과 石塔』, 『考古美術』1-2(2), 1960. 9.
- \_\_\_\_\_, 『醴泉 本洞 발견 金銅觀音菩薩立像』, 『考古美術』1-3(3), 1960. 10.
- \_\_\_\_\_, 『慶州 출토 三尊佛의 또 한 例』, 『考古美術』1-4(4), 1960. 11.
- \_\_\_\_\_, 『銀製鍍金 舍利盒』, 『考古美術』1-5(5), 1960. 12.
- \_\_\_\_\_, 『入室驛의 陽刻 菩薩坐像』, 『考古美術』2-1(6), 1961. 1.
- \_\_\_\_\_, 『四天王像 甓塼의 一 例』, 『考古美術』2-3(8), 1961. 3.
- \_\_\_\_\_, 『玄風 石氷庫』, 『考古美術』2-4(9), 1961. 4.

- 秦弘燮, 「慶州 출토 骨壺의 新例」, 『考古美術』2-5(10), 1961. 5.
- \_\_\_\_\_, 「尙州 化寧의 石佛」, 『考古美術』2-6(11), 1961. 6.
- \_\_\_\_\_, 「大邱 石氷庫碑」, 『考古美術』2-7(12), 1961. 7.
- \_\_\_\_\_, 「榮州 黑石寺의 石造佛像」, 『考古美術』2-7(12), 1961. 7.
- \_\_\_\_\_, 「石窟庵에서 발견된 遺物」, 『考古美術』2-8(13), 1961. 8.
- \_\_\_\_\_, 「石窟庵 保存의 經緯」, 『考古美術』2-8(13), 1961. 8.
- \_\_\_\_\_, 「燕岐의 三尊千佛碑像」, 『考古美術』2-9(14), 1961. 9.
- \_\_\_\_\_, 「尙州 化西面 石佛」, 『考古美術』2-10(15), 1961. 10.
- \_\_\_\_\_, 「異形 土器 二例」, 『考古美術』2-11(16), 1961. 11.
- \_\_\_\_\_, 「宿水寺址 출토 銅佛」, 『考古美術』2-12(17), 1961. 12.
- \_\_\_\_\_, 「奉化 鳳城里 石佛」, 『考古美術』3-1(18), 1962. 1.
- \_\_\_\_\_, 「大象二年銘 石造 菩薩立像」, 『考古美術』3-2·3(19-20), 1962. 2-3.
- \_\_\_\_\_, 「榮州 休川里 磨崖石佛」, 『考古美術』3-4(21), 1962. 4.
- \_\_\_\_\_, 「洪武 二十三年의 馬符」, 『考古美術』3-6(23), 1962. 6.
- \_\_\_\_\_, 「求禮 論谷里의 石造遺物」, 『考古美術』3-8(25), 1962. 8.
- \_\_\_\_\_, 「寧越 발견 金銅如來立像」, 『考古美術』3-10(27), 1962. 10.
- \_\_\_\_\_, 「善山 海平洞 石造如來坐像」, 『考古美術』4-1(30), 1963. 1.
- \_\_\_\_\_, 「石製 奏樂像」, 『考古美術』4-3(32), 1963. 3.
- \_\_\_\_\_, 「慶州 南山 彌勒谷의 磨崖石佛坐像」, 『考古美術』4-4(33), 1963. 4.
- \_\_\_\_\_, 「金銅如來立像과 菩薩立像」, 『考古美術』4-5(34), 1963. 5.
- \_\_\_\_\_, 「鴨形 土器 二例」, 『考古美術』4-6(35), 1963. 6.
- \_\_\_\_\_, 「金銅鞍裝 金具의 新例」, 『考古美術』4-7(36), 1963. 7.
- \_\_\_\_\_, 「傳 玄風 출토 坩臺 及坩」, 『考古美術』4-8(37), 1963. 8.
- \_\_\_\_\_, 「安東郡 豊山面 磨崖洞 望天寺址 石佛坐像」, 『考古美術』4-8(37), 1963. 8.
- \_\_\_\_\_, 「求禮 龜山 磨崖如來立像」, 『考古美術』4-9(38), 1963. 9.
- \_\_\_\_\_, 「永同 新項里 三尊佛石像」, 『考古美術』4-10(39), 1963. 10.
- \_\_\_\_\_, 「安東 造塔洞古墳 發掘調査」, 『考古美術』4-11(40), 1963. 11.
- \_\_\_\_\_, 「杏葉의 一例」, 『考古美術』4-12(41), 1963. 12.
- \_\_\_\_\_, 「金銅如來立像」, 『考古美術』5-3(44), 1964. 3.
- \_\_\_\_\_, 「변역: 梅原末治, 益山 출토의 龍氏作 盤龍鏡」, 『考古美術』5-3(44), 1964. 3.
- \_\_\_\_\_, 「異形 土器의 一例」, 『考古美術』5-4(45), 1964. 4.
- \_\_\_\_\_, 「간다라 佛像의 一例」, 『考古美術』5-5(46), 1964. 5.
- \_\_\_\_\_, 「咸安 主吏寺 四獅石塔址의 調査」, 『考古美術』5-6·7(47-48), 1964. 6-7.
- \_\_\_\_\_, 「又玄 高先生의 二十周忌를 맞이하여」, 『考古美術』5-6·7(47-48), 1964. 6-7.

- 秦弘燮, 「英陽 新邱洞 三層石塔」, 『考古美術』5-8(49), 1964. 8.
- \_\_\_\_\_, 「安東·英陽·慶州의 塔像 新例」, 『考古美術』5-8(49), 1964. 8.
- \_\_\_\_\_, 「安東 場基洞 磨崖三尊佛」, 『考古美術』5-9(50), 1964. 9.
- \_\_\_\_\_, 「安東 場基洞 磚塔址」, 『考古美術』5-9(50), 1964. 9.
- \_\_\_\_\_, 「南原 女院寺의 磨崖如來像」, 『考古美術』5-11(52), 1964. 11.
- \_\_\_\_\_, 「八公山 符仁寺址의 調査」, 『考古美術』5-12(53), 1964. 12.
- \_\_\_\_\_, 「望德寺址의 階段址」, 『考古美術』6-1(54), 1965. 1.
- \_\_\_\_\_, 「禪本庵 三層石塔」, 『考古美術』6-2(55), 1965. 2.
- \_\_\_\_\_, 「安東 吉安面 模磚塔」, 『考古美術』6-3·4(56-57), 1965. 3-4.
- \_\_\_\_\_, 「慶州 甘山寺址·崇福寺址의 調査」, 『考古美術』6-5(58), 1965. 5.
- \_\_\_\_\_, 「興輪寺址 출토 瓦磚」, 『考古美術』6-6(59), 1965. 6.
- \_\_\_\_\_, 「慶州 皇吾里 古墳 整理調査 概要」, 『考古美術』6-8(61), 1965. 8.
- \_\_\_\_\_, 「奉化 太子寺址 調査 概要」, 『考古美術』6-12(65), 1965. 12.
- \_\_\_\_\_, 「安東 臨河洞 三層石塔 內 舍利藏置」, 『考古美術』7-1(66), 1966. 1.
- \_\_\_\_\_, 「金銅製 小塔形」, 『考古美術』7-2(67), 1966. 1.
- \_\_\_\_\_, 「鳴鳳寺 慈寂禪師 凌雲塔碑」, 『考古美術』7-3(68), 1966. 3.
- \_\_\_\_\_, 「四佛山 四佛庵과 妙寂庵 磨崖如來坐像」, 『考古美術』7-9(74), 1966. 9.
- \_\_\_\_\_, 「廣興寺 銅鐘」, 『考古美術』7-1(76), 1966. 11.
- \_\_\_\_\_, 「安東 琴韶洞 塔像」, 『考古美術』8-3(80), 1967. 3.
- \_\_\_\_\_, 「慶州 皇吾里 古墳 發掘調査 概要」, 『考古美術』8-8(85), 1967. 8.
- \_\_\_\_\_, 「銅製 延祐元年銘 秤錘」, 『考古美術』9-1(90), 1968. 1.
- \_\_\_\_\_, 「提川 長樂里 模磚石塔 舍利孔」, 『考古美術』9-1(90), 1968. 1.
- \_\_\_\_\_, 「大典寺 발견 金銅佛像」, 『考古美術』9-4(93), 1968. 4.
- \_\_\_\_\_, 「鶴駕山 磨崖佛立像」, 『考古美術』9-3(93), 1968. 4.
- \_\_\_\_\_, 「慶州 排盤里 발견 石塔材」, 『考古美術』9-4(93), 1968. 4.
- \_\_\_\_\_, 「法泉寺址 石造光背」, 『考古美術』9-10(99), 1968. 10.
- \_\_\_\_\_, 「普門寺 西塔址 心礎의 調査」, 『考古美術』9-11(100), 1968. 11.

\* 통권 100호로 고고미술동인회 발간은 끝났음.

- 秦弘燮, 「漆谷 箕城洞 三層石塔」, 『考古美術』102, 1969. 6.
- \_\_\_\_\_, 「皇龍寺址 發掘調査 豫報」, 『考古美術』103, 1969. 9.
- \_\_\_\_\_, 「所謂 方壇式 特殊形式의 石塔 數例」, 『考古美術』110, 1971. 6.
- \_\_\_\_\_, 「三國時代 一蓮花紋形式에 관한 比較試論」, 『考古美術』113·114, 1972. 6.
- \_\_\_\_\_, 「金銅 水晶 嵌裝燭臺」, 『考古美術』118, 1973. 6.

- 秦弘燮, 「所謂方壇式特殊形式의 石塔數例補」, 『考古美術』121·122, 1974. 9.
- \_\_\_\_\_, 「古新羅時代 漆器彩畫에 나타난 高句麗의 영향」, 『考古美術』123·124, 1974. 12.
- \_\_\_\_\_, 「三和寺의 塔像」, 『考古美術』129·130, 1976. 6.
- \_\_\_\_\_, 「異形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考古美術』138·139, 1978. 9.
- \_\_\_\_\_, 「異形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補」, 『考古美術』146·147, 1980. 8.
- \_\_\_\_\_, 「古新羅時代의 彫刻」, 『考古美術』150, 1981. 6.
- \_\_\_\_\_, 「雁鴨池 출토 金銅板佛」, 『考古美術』154·155, 1982. 6.
- \_\_\_\_\_, 「統一新羅時代 特殊樣式의 石塔」, 『考古美術』158·159, 1983. 9.
- \_\_\_\_\_, 「中原地方의 佛教美術」, 『考古美術』160, 1983. 12.
- \_\_\_\_\_, 「金銅佛像〈高麗後期 金銅佛像에 나타나는 라마 佛像樣式〉」, 『考古美術』166·167, 1985. 9.
- \_\_\_\_\_, 「高麗時代의 舍利莊嚴具」, 『考古美術』180, 1988. 12.

\* 188호부터 『美術史學研究』로 제호가 바뀜

『美術史學研究』

- 秦弘燮, 「回顧三十年」, 『美術史學研究』188, 1990. 12.
- \_\_\_\_\_, 「又玄 高裕燮 先生 回顧」, 『美術史學研究』196, 1992. 12.
- \_\_\_\_\_, 「慶州는 重患者이다 : 古都保存 세미나 발표문」부록, 『美術史學研究』206, 1995. 6.

『美術資料』

- 秦弘燮, 「安東 錦溪洞 化人寺址 塔塔」, 『美術資料』1, 1960. 8.
- \_\_\_\_\_, 「慶州 皇吾里 古墳 發掘 調査 略報告」, 『美術資料』2, 1960. 12.
- \_\_\_\_\_, 「光州 西五層石塔의 舍利裝置」, 『美術資料』5, 1962. 6.
- \_\_\_\_\_, 「慶州 西岳里 磨崖石佛의 脇侍菩薩」, 『美術資料』6, 1962. 12.
- \_\_\_\_\_, 「禪林院址 三層石塔內 發見 小塔」, 『美術資料』9, 1964. 12.
- \_\_\_\_\_, 「皇龍寺 塔址 舍利孔의 調査」, 『美術資料』11, 1966. 12.

#### 4. 기타

- Chin, Hong-sup. "The Stone Cave Temples in Silla Era"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Interregional Influences in East Asian Art History-*, Toky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1982.(October 6to 9, 1981, Tokyo, Japan)
- \_\_\_\_\_. "Art Objects from Ancient Tombs"; "The Origin of Korean Sculpture", *Traditional Korean Art*, Edite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of UNESCO, 1983.(The Si-sa-yong-o-sa Publishers, Inc. Korea ; Pace International Research, Inc. U.S.A)

## 5. 보고서

- 秦弘燮, 『造塔洞古墳 發掘調査報告』安東地區古蹟調査報告書 第二篇,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75.
- \_\_\_\_\_, 『中佳邱洞古墳 發掘調査報告』安東地區古蹟調査報告書 第三篇,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77.
- \_\_\_\_\_, 『新羅北岳太白山遺蹟調査報告』1-7, 『韓國文化研究院 論叢』34-4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79-1982.
- \_\_\_\_\_, 『開目寺塔址 發掘調査報告』安東地區古蹟調査報告書 第四篇,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4.
- \_\_\_\_\_, 『傳玉山寺塔址 發掘調査報告』安東地區古蹟調査報告書 第五篇,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4.
- \_\_\_\_\_, 『榮州順興 壁畫古墳 發掘調査報告』,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4.

## 6. 전집·도록

- 秦弘燮, 『土器·土偶·瓦塼』, 『韓國美術全集』3, 동화출판공사, 1974.
- \_\_\_\_\_, 『金屬工藝』, 『韓國美術全集』8, 동화출판공사, 1974.
- \_\_\_\_\_, 『工藝』, 『國寶』5, 예경산업사, 1985.
- \_\_\_\_\_, 『塔婆』, 『國寶』6, 예경산업사, 1983.
- 황수영·정영호·진홍섭, 『韓國佛像三百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진홍섭·안장현, 『石佛』, 호영출판사, 1982.

## 국문초록

한국미술사학회는 1960년에 시작한 고고미술동인 다섯 선생님들로부터 시작했다. 이 중에 진홍섭과 황수영 두 분 선생은 2018년 탄생 100년을 맞게 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한국미술사학회에서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니 그 의의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분 선생은 같은 해 개성에서 태어나고 일본에 유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했다. 전공 분야와는 연관이 없는 미술사 연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개성박물관 관장인 우현 고유섭의 영향이다. 두 분 선생은 평생 한국미술사학을 연구하여 학계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한국미술사 학회를 이끈 주역이다.

수목 진홍섭 선생은 우현 고유섭의 뒤를 이어 개성박물관장이 되었고,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경주박물관장을 거쳐 잠깐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과장을 역임했지만, 바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박물관장의 보직을 받아 20년을 재직했다.

선생은 경주박물관장 시절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개설했고 지금까지 수 천명의 어린이들이 이곳을 거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미술사전공 제자를 많이 배출했는데 이들은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중진역할을 하고 있다. 제자들은 선생이 지어준 '여여회' 이름으로 경주 어린이박물관에 매년 어린이 책을 기증하고 있으며, '수목문고'가 있는 도서실은 경주박물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선생의 무언의 가르침이었고 온누리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다. 1899년에 개성에서 개교한 호수둔여자고등 보통학교가 폐교에 직면했을 때 선생은 선뜻 큰 재산을 희사해 살려낸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경주시내를 관통하게 될 고속철도의 건설을 막기 위해 1995년 3월 「경주는 중환자이다」라는 것을 발표했고 이때 달걀세례를 받았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서울 시민회관에서서의 일은 선생의 문화재 사랑의 일면을 보여준다.

선생은 단행본 25권, 논문 147편, 보고서 6권, 전집 및 도록 6권으로 놀랄만한 연구의 흔적을 남겼다. 특히 『한국미술사자료집성』 9권은 미술사 연구의 문헌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했고 오랫동안 묵묵히 자료를 모았던 수목 선생의 땀의 결실이다.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책으로 엮은 자료는 수 십 세기가 지나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한 눈에 한국미술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미술사연표』는 수차례 수정 보완을 거친 책으로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된다. 선생은 2010년 11월 타계하기 1년 전까지도 책의 수정 보완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책을 옆에 두었다. 제자들이 본받을 수도 없는 열정을 끝까지 가지고 계셨다.

선생의 평생을 돌이켜보면,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던 삶이었다. 중앙국립박물관 관장의 제의가 있을 때 이를 양보한 일이라던지, 또 문화재 훼손에서는 주저함 없이 앞장에 섰던 것은 정의를 위해 굽히지 않았던 선생의 면모이다. 어려운 고비마다 한국미술사학회의 대표직을 수행했던 것은 학회 사랑의 모습이다. 선생의 이러한 면모가 '명리를 멀리한 군자로 칭송받는 이유'이다.

**Dr. Soomuk Chin Hong-sup:  
On His Scholar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Art History**

**Kang, Kyung sook\***

The Art History Association of Korea was established with the five scholars in the Coterie of Antiquarians, which had been founded in 1960. The year of 2018 marks the centennial of the birth of two of the five scholars, Chin Hong-sup and Hwang Su-young. To celebrate the centennial anniversary, the Art History Association of Korea organized a conference, which has a special meaning in the field of Korean art history. Both of the two scholars were born in Gaeseong in the same year, and studied business administration in Japan. The reason why they became scholars in art history, which was unrelated to their major, was because of the director of the Gaeseong Museum, Uhyeon Ko Yu-seop's influence on them. The two scholars devoted their entire life to the study of Korean art history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scholarship in the field and founded the Art History Association of Korea.

Of the two scholars, Soomuk Chin Hong-sup succeeded Uhyeon Ko Yu-seop as the director of the Gaeseong Museum. After the Korean War, Chin was appointed the director of the Gyeongju Museum and then the chief official in the Office of Culture Properties. Shortly after the appointment he was hired as a professor at the Ewha Womans University, with which he held the position of the director of the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concurrently for twenty years.

During his term in office at the Gyeongju Museum, Chin established the Gyeongju Children's

---

\* Retired Professor from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School, which has served thousands of children thus far. At the Ewha Womans University, he trained numerous students in art history, who are now playing important roles in various fields. His students in the group called Yeoyeohoe, whose name was given by Chin, donate books to the Gyeongju Children's Museum School every year, and a library with a collection of Chin's books, named "Soomuk mungo," has been run by the Gyeongju Museum. These activities embody his teachings and exert positive influence throughout the country. In 1899 when the Hosudon Girls' High School in Gaeseong was about to be closed down, he willingly donated a large fortune to continue the school, demonstrating his exceptional virtue.

To prevent the construction of KTX, which would pass through Gyeongju, he published his article titled "Gyeongju is a Critical Patient." in conference at the Seoul Civic Center he became the victim of egging. Nonetheless, he kept his seat until the end of the conference, showing his strong affection for cultural heritages.

Chin made outstanding academic achievement as illustrated in his publications encompassing 25 books, 147 articles, 6 reports, and 6 catalogues. Of these publications the ninth volume of the *Compilation of Primary Sources in Korean Art History* provides textual sources for art history research, and represents his persistent scholarly endeavor. Although digitized materials are being extensively utilized in the field, the materials collected in this book will be invaluable for centuries. Furthermore, the Chronology of Korean Art History has been useful for both specialists and non-specialists in Korean art history, having been revised by the author several times. Up until he passed away in November of 2010, Chin had kept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publication, demonstrating his enormous enthusiasm about art history that cannot be surpassed by any of his students.

He did not seek fame and profit throughout his entire life, as illustrated in the fact that he declined the post of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howing his strong will and sense of justice, he always took initiative without hesitation in stopping damages on cultural heritages. He also assumed the leadership, whenever the Art History Association of Korea was faced with a crisis, as he cherished the association.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Soomuk Chin Hong-sup well deserves the admiration as "a man of noble character standing aloof from fame and profit."